

불교TV 아카데미 강의 요약

화엄의 세계 해주스님 지음

《화엄의 세계》는 동국대 사회교육원과 불교TV가 공동으로 개설해 방영되고 있는 '동국 TV 불교아카데미'에서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이 '화엄사상의 세계'를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해 묶은 책이다.
《화엄경》은 한국불교의 수행과 수행형태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경전으로, 여기에서는 화엄경의 중심사상, 화엄경을 교의로 한 화엄종의 화엄사상, 한국의 화엄사상, 화엄경의 편찬·유통과 화엄종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 화엄경으로 수학과 신행·중독해가는 화엄의 수증론(修證論) 등을 살피고 있다. 불교TV를 시청하는 불자들은 물론 화엄경을 강의하는 법사나 스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민족사, 8천5백원)

사찰의식의 방법·의미 쉽게 풀이

예불, 그 속에... 김현준 지음



‘제가 지금 맑은 청정수물/감로의 차로 변하게 하여/불법승 상보전에 받들어 올리오니/원컨대 어여버 여겨 거두어 주소서’ 새벽예불문의 다계(茶偈)로 자신이 부처님처럼 되었다는 발원을 담은 것이다. 《예불, 그 속에...》는 사찰의식의 시작인 도량석에서부터 법종, 법고 등 사물을 치는 까닭, 계율과 선정, 향공양을 올리는 까닭, 해탈지경의 오분향에 갖든 의미, 지심귀명례를 이루는 방법 등 예불문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상세히 풀이하고 있어 예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밝히고 있다. “예불문 속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김현준씨는 공부하는 자세로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효림, 5천원)

죄와 번뇌에 대한 종교적 시각차

...예수와 선 세이이치 지음



인간은 죄인 또는 번뇌로 가득찬 존재이므로 오로지 신앙에 의해 구원이 가능하다. 바울과 정토불교는 똑같이 인간의 죄성과 번뇌성을 강조하고,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신앙에서 찾는다. 예수와 선은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은 경지를 말한다. 예수는 역사와 전통, 구약에 의거하지 않고 사랑과 구원을 말하며 선은 불립문자를 내세워 어떤 경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유와 깨달음을 말한다. 도서출판 대원정사의 불교와 기독교 대화총서 제8권인《바울과 정토불교, 예수와 선》 그러나 서로간의 공통점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바울의 기독교는 공동체에 중심을 두지만 정토는 개인의 번뇌와 죄를 문제로 삼는다. 저자는 “예수에게는 신학도, 신조도 없다. 이 점에서 선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원정사, 8천5백원)

“출소자에게 책을 보냅니다”

갱생시설에 도서관 마련 삼중스님

권당 1천원씩 보답



“출소자들에게 책을 보냅니다.” 삼중스님은 요즘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한다. 삼중스님이 책을 보내주고 있는 곳은 갱생보호관리공단 부산지부. 현재 50여명의 출소자들이 이곳에 있는데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일지리는 없다보니 ‘밤 때’만 기다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 문제는 6개월 이내 이곳에서 독립해 나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적응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회로 복귀해야 하고, 그럴 경우 다시 범죄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스님은 부산지부에 요청해 이미 도서관을 마련

해 놓고 책 1만권을 채워 6월말경 개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3개월전부터 지금까지 모은 책은 모두 1천5백여권으로 목표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스님은 불자들과 교계 출판사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책을 내놓는 출판사에는 종이값에도 못미치지지만 권당 1천원의 감사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면 이처럼 큰 포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02)593-2883 · 2842 (051)467-7642, 505-0301

아동기 창의적 교육법 제시

대원스님 ‘불교 아동학 개론’ 펴내



학계에서조차 ‘불교 아동학’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불교계의 전문적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대원스님(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이 펴낸 《불교 아동학 개론》은 ‘불교 아동학’에 대한 최초의 개론서이자 ‘불교 아동학’을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확고히 굳혔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불교 아동학’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내 아동학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1부에서 불교 아동학의 개념과 불교적 아동관, 불교의 전통 아동교육, 삼학과 사십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 및 내용 등 불교 아동학 이론 전반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명칭 및 행사, 불전 설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불교

아동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아동은 태아기부터 아동의 인격을 인정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자신의 의지로 능동적인 발달을 이룩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즉, 화엄경의 주인공인 어린 선재의 구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에게는 보호와 교육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의지와 창의성으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 초점이다. 아동이 불교개념 획득을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이며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특성의 내적요인과 부모나 가족 교사 등의 외적요인이 조화

과관계를 통한 방법 등을 통해 교육할 경우 교육내용이 목표로 하는 자아완성과 이상 실현을 위한 이상적인 불교교육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 아동학을 ‘종교적 사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동기에 불교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인

불교 아동학 개론



를 이뤄야 하며, 적합한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불교의 교육내용으로는 팔정도나 사십법, 육바라밀과 삼학 등이 있는데, 이를 경전에 나타난 불교적 교육방법인 문답형과 비유적인 방법, 인과관계를 통한 방법 등을 통해 교육할 경우 교육내용이 목표로 하는 자아완성과 이상 실현을 위한 이상적인 불교교육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 아동학을 ‘종교적 사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동기에 불교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인

현명우 기자

종교적 경험 유도로 인성발달 사찰 아동교육의 중요성 강조

종교적 경험 유도로 인성발달 사찰 아동교육의 중요성 강조

“불상양식의 전환점 6세기 후반”

정예경씨 ‘중국 복제·북주 불상연구’ 펴내

《중국 복제·북주 불상연구》(혜안)는 우리 불상조각사와 불가본의 관계에 있는 중국의 불상조각, 특히 복제·북주기의 조각을 면밀히 분석한 미술사 저작이다. 6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기존의 회화적·추상적 전통양식에서 벗어나 조소적·현실적 변혁양식이 등장한다. 복제·북주 불상조각이 그것으로, 이 흐름은 당나라 조각에서 정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복제·북주 불상조각은 북위로부터 시작된 중국조각사의 내적인 발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 정예경(동국대 강사)씨는 북위·북주 불상조각이 장신구와 신체표현상의 특징을 세밀히 분석해 인도·동남아 불상조각에 나타나는 형태 및 비례관계가 채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인도의 굽타조각으로 여겨져 왔으나 저자는 이 굽타조각의 영향은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인도 및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의 불상조각역사와 전개과정과 여래상의 차이 형식을 통해 복제·북주불상조각에 보이는 동남아시아적 모티프(장신구)를 분석하는 한편, 여래입상, 여래좌상, 보살상을 통해 복제·북주 불상양식의 모방양식과 변형양식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각 불상의 사진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북주·복제 불상조각이 양식적인 원류로 삼은 것은 인도 불상조각 가운데서도 남인도 불상조각에 주목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신문
2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을순	신우당
3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효림	효림
4	불교인문	조계종전남부	조계종출판사
5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운수	민족사
6	알기쉬운 불교 미술	동국대학교	불교방송
7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열거지	성우·지현	민족사
8	참선교육	현담	조계종수신회
9	장가 안가길 잘했네!	우화	풍은인연
10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윤정광	서울출판미디어

구입문의:(02)737-0695

불교 사문자 숙어사전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를 목록화한 《불교사문자숙어사전》(佛敎四文字熟語事典) 상·하권이 발간됐다. 저자는 스도오류센(須藤隆仙·日 정토종 청명사 주지), 책의 구성은 해당 사자성어를 의역하여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자재’는 ‘자유는 해탈하여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경지, 자재는 마음 그대로의 상태로 사로잡힘이 없는 느긋한 상태’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일본 각 종파에서 나온 숙어 등 1천여개가 수록돼 있다. 日 新人物往來社 刊. (상 264p 하 288p)

제2회 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口)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영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감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정충동 영명사도회빌딩 옆)
-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김현준(金鉉竣)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필작 《법공양》 발행인

불교신행총서 111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유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8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신학계의 최고봉 경북대선사 저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워준 경북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